

농어촌공 이병호 사장, ‘새만금 잼버리대회 현장’ 긴급 점검



(사진설명)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왼쪽 첫번째)이 극한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하여 긴급 점검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은 16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에서 열릴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8월 1일~12일)’를 대비해 긴급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물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대회 전까지의 보강공사 계획 및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강화대책 수립을 지시하였다.

공사는 잼버리대회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현장점검 후 배수로 확장·정비 등 침수 대비 보강공사를 이행하고 있으나, 13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280mm)로 인해 추가적인 공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안전한 배수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강우가 집중되는 구간의 수로단면 등을 보강하고, 행사 중 긴급 동원인력 및 장비 계획을 재정비해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병호 사장은 “국제적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보강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행사 중 집중적인 폭우 시에도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새만금사업단 사업관리부	책임자	부 장	문진배 (063-540-5820)
		담당자	차 장	이남주 (063-540-5823)